



미리보기



◎ 한양의 도읍지 건설 계획

한양에는 전통 지리학인 풍수지리학과 조선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으로 삼았던 유교정신이 잘 드러납니다. 특히 유교정신은 한양 성곽을 따라난 커다란 4개의 문에서 잘 드러나는데 사대문은 동쪽에 흥인문, 서쪽에 돈의문, 남쪽에 숭례문, 북쪽에 숙정(=지)문, 그리고 이 문을 여닫는 종을 매단 보신각으로 이루어집니다. 가운데 자를 모으면 인, 의, 예, 지, 신으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다섯 가지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이지요.

* 仁(어질 인), 義(옳을 의), 禮(예도 예), 智(지혜 지), 信(믿을 신)

1. 종묘와 사직단

도읍을 정하면서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은 종묘와 사직입니다.

종묘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고, 사직은 땅신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나라일을 대표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. 또 공자를 모시는 문묘라는 사당과 교육기관인 성균관도 짓습니다.

2. 궁궐건축과 성곽축성

가장 먼저 지어진 궁궐은 경복궁입니다.

궁궐이 자리들 잡자 한양을 둘러싼 네 개의 산을 따라 성을 쌓습니다. 성을 쌓으며 사람들이 드나드는 커다란 4개의 문과 자그마한 4개의 문도 짓습니다.

3. 기본 도로와 시전 완성

궁궐 앞으로 큰 길이나고 양 옆으로 판청이 들어섭니다.

이 길을 육조거리라고 했습니다. 성곽 동쪽과 서쪽을 가로지른 길에는 시전이라는 궁궐과 도성사람들에게 물자를 공급해주는 가게들이 들어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이 몰려들어 운중가라고 했습니다.



한 눈에 '쏙쏙' 한국사 [제5강-조선시대]

선조들의 혼이 살아있는 종묘

종묘

www.schoolall.com

◎ 종묘

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한양천도를 결정하면서 가장 먼저 종묘와 사직을 건설할 것을 명령합니다. 그만큼 조선에서 **종묘는 국가의 운명을 뜻할 만큼 중요한 건물입니다. 바로 왕의 조상들을 모시는 사당이기 때문입니다.**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음악과 춤을 함께 올리는데, 이 전통은 세계에서도 드물게 전해오는 것이어서 **종묘와 종묘제례 그리고 종묘제례악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.**



◎ 신향로



종묘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세 갈래로 나뉜 길입니다. 정전과 영녕전으로 이어지는 이 길을 신향로(신로)라고 합니다. 가운데 길은 신이 가는 길이며, 오른쪽, 왼쪽은 왕과 세자가 걷는 길입니다. 지금은 누구나 걸을 수 있지만, 종묘제례가 있는 날에는 엄격히 출입을 통제하는 길입니다.

! 앞 마당에는 아주 거친 돌이 깔려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

종묘는 아주 엄숙한 공간이고,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오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. 그래서 종묘를 들어서서 오는 하월대에 거친 돌을 깔았습니다.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 거친 돌은 **햇빛의 반사광을 분산시켜 건물을 더 엄숙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.** 일종의 조명역할을 하는 것이죠.

! 종묘에 심지 않았다는 게 있다는데, 무엇일까요?

종묘는 사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고 가라앉은 곳입니다. 그리고 하늘의 제신 신명과 접촉을 하는 곳이므로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. 그래서 정전 뒤편은 가산을 만들었고, 앞 부분에 언덕을 만들어 아득하게 감싸게 하며 정전과 영녕전 신전이 안기도록 키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. 그리고 **엄숙한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 화려한 꽃나무를 심지 않았습니**다. 그러나 지금 꽃이 보이는 까닭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종묘가 너무 칙칙하다면서 꽃나무들 많이 심었기 때문입니다.